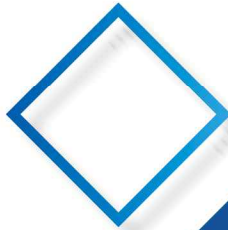


## R&I TRENDS

# EU R&I 주간 브리핑

2025.12.10



# Contents

## ▶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

- ① 유럽의회, 유럽단일연구공간 법안(ERA Act) 논의 선점(12.4)
- ② 경쟁력위원회 회의, 미래 연구혁신 주요 우선순위 논의(12.9)
- ③ EU 집행위, 항공산업 전략 마련 착수(12.4)
- ④ 연구평가 개혁 회의, 평가 방식 혁신을 위한 논의 진행(12.5)
- ⑤ EIC 포럼. 유럽혁신법에 대한 입장문 채택(12.5)

## ▶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 등

- ① EU R&D 지출 4,031억 유로로 증가했지만, 집약도 2.24%로 목표 여전히 미달(12.4)
- ② ERC, Consolidator Grant 수혜자 발표(12.9)
- ③ MSCA Choose Europe 첫 시범공모 ... 2026년부터 본격 채용 시작(12.5)

## ▶ EU 연구성과

- ① (성공사례) MEDIATIZED EU 프로젝트, 미디어가 EU 시민 인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
- ② (성공사례) REBOOT 프로젝트, 유럽 영화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③ (성공사례) NOMAD 프로젝트, 유럽 도시의 빈 공간을 공동체 기반의 활력 공간으로 전환
- ④ (성공사례) TWINGHY 프로젝트, 수소 기반 하이브리드 버너로 철강 산업 탈탄소화 가속

# 1.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

## 1] 유럽의회, 유럽단일연구공간 법안(ERA Act) 논의 선점(12.4)

- 유럽의회가 2026년 집행위 제안보다 앞서 ERA 법안 논의를 시작하며 협상 주도권 확보 시도
  - 집행위가 ERA 법안 초안을 발표해야 입법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나, 유럽의회는 구두질의와 결의안을 함께 제출하며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며, 연구산업위원회에서 라코스(EPP) 의원이 초안 보고서를 발표
  - ※ 집행위는 동 법안을 원래 2027년 제안 예정이었으나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이 현 임기 내 마무리를 위해 일정을 앞당겨 2026년 제안 추진
  - 라코스는 ERA를 유럽 경쟁력을 위한 전략적인 도구로 규정하며 인재 유출 방지, 민간투자 유치, R&D 투자율 3% 목표 반영 필요성을 강조
  - 유럽의회는 2026년 3월까지 결의안 채택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ERA 법안 협상에서 정치적 방향성을 선제적으로 설정할 계획
  - 3% R&D 투자 목표는 회원국 간 경제 여건 차이·지정학적 요인으로 논쟁적 쟁점이 될 전망
  - 라코스 의원은 NATO의 국방비 합의 사례를 들어,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회원국 간 공동 목표 합의도 가능하다고 강조
- ERA 법안의 4대 핵심 우선순위 제시
  - (과학 연구의 자유 보호) 학문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전용 입법과 공통 윤리 기준 마련 요구
  - (강력하고 일관된 ERA 거버넌스 구축) ERA Act를 규정 형태로 도입해 구속력 강화, 거버넌스·모니터링 체계 정비, 기존 정책·도구 간 중복 최소화, EU 주요 전략과의 정합성 확보
  - (R&D 투자 확대 및 3% 목표 달성) EU R&D 투자율(평균 2.2%)을

끌어올리기 위해 GDP 대비 3% 목표를 법안에 포함할 것을 요청. 회원국별 목표·로드맵 지원, 민간투자 유인을 위한 전략적 인센티브 필요

- (연구자 이동성·경력·근무환경 개선) 비자·자격 상호인정 등 이동성 장벽 완화, 근무조건 및 경력 개발 강화, 성평등·기회균등 확대, 연구 보안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european-research-area/race-era-act-begins-mep-unveils-early-proposal>

## 2 경쟁력위원회 회의, 미래 연구혁신 주요 우선순위 논의(12.9)

- 브뤼셀에서 열린 EU 경쟁력위원회(연구 분야) 회의에서 EuroHPC 공동사업단 규정 개정, 호라이즌 유럽 패키지, 유럽대학연합, 스케일업 펀드, 연구 보안, 차기 키프로스 의장국 우선순위 등을 논의
  - 지난 12월 9일 브뤼셀에서 열린 경쟁력위원회 회의에서 EU 연구 담당 장관들이 모여 유럽의 미래 연구혁신 환경을 형성할 주요 전략을 논의
  - 회의는 덴마크 EU 의장국 주재로 진행됐으며, 덴마크 에겔룬드 고등교육과학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EU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이 참석
  - 유럽 고성능 컴퓨팅 역량 강화, AI 기가팩토리 개발 지원, 양자기술 추진을 위해 개정된 EuroHPC 규정에 대한 전반적 접근 방식을 채택. 개정안은 해당 공동사업단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최전선에 머물며, 연구자·산업계·공공 부문에 안전하고 우수한 컴퓨팅 역량을 지속 제공하도록 하는 데 목적
  - 차기 다년재정프레임워크에 포함될 호라이즌 유럽 패키지에 대한 연구혁신 전략적 우선순위 논의가 진행됨. 회원국들은 유럽 차원의 공동파트너십이 필요한 핵심 우선과제를 제시(간소화 촉구, HE-ECF 연계 명확화, 민간 투자 활용, 공공-민간 파트너십 육성, 연구결과 상용화 등)
  - 덴마크 의장국은 10월 이후 진행된 호라이즌 유럽 패키지 협상에 대한 경과 보고서를 제시했으며, 장관들은 이를 검토하고 향후 키프로스 의장국 하에서의 추가 협상 과제를 확인

- 기타 안건으로 유럽대학연합이 연구 우수성, 인재 순환, 혁신 촉진에 기여하는 방안을 공유하고, 집행위는 스케일업 유럽 펀드 현황과 연구 보안 협력 공간 구축 현황을 보고
- 키프로스 차기 의장국은 연구 분야 우선순위를 발표. 오는 3월 키프로스에서 비공식 회의가, 2월과 5월 브뤼셀에서 공식 이사회가 각각 예정됨

출처

<https://era.gv.at/news-items/horizon-europe-moves-forward-as-eu-research-ministers-take-stock-of-progress-and-outline-future-priorities/>

### 3 EU 집행위, 항공산업 전략 마련 착수(12.4)

- EU 집행위가 항공산업을 위한 신규 산업전략 수립에 착수했으며, 연구혁신 투자 방향과 호라이즌 유럽 후속 파트너십 구조 재정비가 핵심이 될 전망
  - EU 집행위 코르넬리스 항공국장은 항공 분야 전용 산업전략 수립을 공식 확인했으며, 이는 규제 간소화, 호라이즌 유럽 내 Clean Aviation·SESAR 공동사업단의 후속 구조 검토를 포함
  - 교통 담당 치치코스타스(Tzitzikostas) 집행위원은 유럽 항공·항공우주 산업의 경쟁력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략은 산업과 공동 설계되어야 한다고 발언
  - 새로운 전략은 2034년까지 적용되는 차기 다년재정프레임워크에 맞춰 향후 10년의 공동사업단 운영 방안을 산업계 의견과 함께 재구성할 예정
  - Clean Aviation과 SESAR가 향후 분리 유지될지, 통합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나, 집행위는 스마트·청정항공, 자동화 항공교통관리(ATM) 등을 EU의 차세대 문샷 프로젝트 후보로 제시
- 산업계는 EU 연구 예산 확대와 친환경 항공 전환 지원을 강하게 요구
  - 유럽은 전 세계 민간 항공기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나, 미국·중국의 경쟁 심화로 전략적 대응 필요

- ASD(유럽 항공우주·안보산업협회) 요한손(Johansson) 회장은 자동차 산업과 같은 위기 사례를 언급하며 “유럽의 항공 리더십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경고
  - ASD 전략안은 차기 장기예산에서 민간 항공 연구 지원 예산의 최소 2배 확대를 요구
  - Clean Aviation·SESAR은 차기 호라이즌 유럽에서 항공기 기술 53억 유로, 항공교통관리 기술 7억 유로 지원을 제안(현행은 각각 17억·6억 유로)
  - 산업계는 또한 EU ETS 수익으로 조성되는 혁신기금의 20~25%를 항공 탈탄소화에 배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현재 심사·절차는 혁신적 항공 기술 및 SAF(지속가능 항공 연료) 생산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제기
- **EU는 이중용도 기술 지원 확대를 추진하며 항공·국방·우주 간 융합 전망**
- 치치코스타스는 드론, 무인시스템, 자율기술 등 이중용도 분야의 중요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감시·물류·재난대응·환경보호·전술작전 등 다양한 영역을 강화한다고 설명
  - 그는 AI 기반 항공·방위 시스템의 설계~운영 전 단계에서 조화되고 혁신 친화적인 규제 체계가 필요하며, 집행위와 회원국의 정책 조율, 산업 규모 확장 지원이 병행되면 첨단 드론 및 대응체계(C-UAS) 분야에서 유럽이 글로벌 선도 가능하다고 강조
  - Airbus 포리(Faury) CEO는 EU 항공우주·국방 생태계가 “공통 기술·팀·엔지니어링·플랫폼·공급망” 기반으로 통합돼 있어 미국 대비 강점이 있다고 평가
  - 반면 코르넬리스 국장은 정치·행정 수준에서는 여전히 민간·군수 항공이 분리된 의사결정 구조라고 지적
  - 연구산업위원회 소속 그루들러(Grudler) 의원은 향후 전략 수립에 국방·우주·산업전략 담당 집행위원 등 여러 위원이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
- **지속가능 항공으로의 전환에는 기술 외 요인, 특히 합성연료·수소 공급이 핵심 병목**

- Airbus는 그린수소 공급 부족으로 수소항공기 출시 연기를 결정
- EU는 지난달 지속가능 교통 투자 계획을 채택하며, 재생·폐기물 기반 SAF 투자를 확대할 방안을 포함. SAF는 기존 제트연료 대비 2~10배 비싸 효율적인 투자·지원체계 마련이 시급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horizon-europe/commission-plans-industrial-strategy-aviation>

#### 4 연구평가 개혁 회의, 평가 방식 혁신을 위한 논의 진행(12.5)

- 연구평가 개혁 회의에서 평가 방식 혁신을 위한 공동 의지를 확인
  - 덴마크 EU 의장국 주관으로 EU 집행위 호라이즌 유럽을 통해 지원을 받아 개최된 'EU 고위급 연구평가 개혁 회의'에서 연구, 연구자, 연구기관 평가 방식의 전환을 위한 공동 의지를 확인
  - 회의에서는 연구평가 개혁을 중심으로, 기존 정량지표 중심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연구품질, 협력, 개방성을 반영하는 평가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논의. 지속 가능한 연구 문화와 경력 경로, 경쟁과 협력의 균형, 오픈사이언스 확대를 주요 의제로 다룸
  - EU, UNESCO, OECD, WHO, 다양한 국가 연구재단, 주요 대학 및 글로벌 학술 네트워크 등 과학·연구·혁신 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세계적 수준에서의 공동 가치와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
- ※ EU 집행위는 연구평가 현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평가개혁연합 (CoARA)'과 협력해 평가 기준, 도구, 절차에 대한 공동 실험 및 개혁을 추진중
- CoARA 창립 3주년 기념 부대행사도 진행,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CoARA 원칙이 향후 연구평가 개혁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논의
- ※ 집행위의 연구평가 개혁 지침은 단일유럽연구공간(ERA) 커뮤니케이션, 유럽 연구혁신 협약에 대한 이사회 권고, ERA 정책 아젠다 등 주요 정책문서에 기반

출처 [http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news/all-research-and-innovation-news/research-assessment-reform-broader-set-contributions-and-metrics-higher-quality-and-impact-2025-12-05\\_en](http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news/all-research-and-innovation-news/research-assessment-reform-broader-set-contributions-and-metrics-higher-quality-and-impact-2025-12-05_en)

## 5 EIC 포럼, 유럽혁신법에 대한 입장문 채택(12.5)

- 유럽혁신위원회(EIC) 포럼이 유럽혁신법에 대한 입장문을 채택하며 EU 집행위의 향후 유럽혁신법 제정을 위한 준비 과정에 기여
  - ※ EIC 포럼은 EU 회원국·준회원국의 혁신 정책 담당 대표들로 구성
    - 입장문은 EIC 포럼 내 논의를 바탕으로 10개 핵심 조치와 포괄적 권고 사항을 제시. 각국의 혁신 시스템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혁신 친화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포용적인 EU 단일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실행 방안을 담고 있음
    - 주요 제안으로 혁신 친화적 입법 및 규제 간소화, EU 전역에서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한 스타트업·스케일업 법인 제도('28th regime'), 자본시장 및 투자도구의 통합적 접근, 규제 샌드박스를 위한 EU 차원 수평적 프레임워크, EIC 포럼의 조정·학습 플랫폼 역할 강화 등을 포함
  - ※ 유럽혁신법은 EU 스타트업·스케일업 전략의 핵심 과제로, 2026년 제정될 예정이며, 연구성과 상용화의 어려움 해소, 산업계-학계 간 협력 강화, 혁신 기업의 공공조달 및 인프라 접근성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

출처

[http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news/all-research-and-innovation-news/eic-forum-publishes-position-paper-future-european-innovation-act-2025-12-05\\_en](http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news/all-research-and-innovation-news/eic-forum-publishes-position-paper-future-european-innovation-act-2025-12-05_en)

## 2.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 등

### 1 EU R&D 지출 4,031억 유로로 증가했지만, 집약도 2.24%로 목표 여전히 미달(12.4)

- 2024년 EU의 연구개발 지출은 약 4,031억 유로로, 2023년 대비 3.6% 증가. GDP 대비 R&D 비중은 2.24%로 목표치 3%에 여전히 미달
  - 연구개발 지출은 2014년(2,486억 유로)과 비교하면 62.2% 증가해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며, GDP 대비 R&D 지출 비율(R&D 집약도)은 2.24%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2014년 대비 0.1%포인트 증가
  - 2014~2024년 사이 19개 회원국에서 R&D 집약도가 상승했으며, 벨기에(+1.0%p), 그리스(+0.7%p), 에스토니아·크로아티아(+0.6%p)가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
  - EU 목표치인 3% 이상의 R&D 집약도를 달성한 국가는 스웨덴(3.6%), 벨기에(3.4%), 오스트리아(3.3%), 핀란드(3.2%), 독일(3.1%), 덴마크(3.0%)
  - 반면, 루마니아·몰타(0.5%), 키프로스(0.7%), 불가리아(0.8%), 라트비아(0.9%), 슬로바키아·룩셈부르크(1.0%)는 R&D 비중이 1%에도 못 미침
  - 2024년 전체 R&D 지출 중 기업 부문이 66.5%(2,681억 유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고등교육 부문이 21.4%(861억 유로), 정부 부문이 10.8%(435억 유로), 비영리 민간 부문이 1.3%(54억 유로)
- EU의 R&D 투자 증가율은 글로벌 경쟁국에 비해 크게 뒤처지며, R&D 집약도도 정체 상태
  - 2014~2023년 미국은 146% 증가(8,837억 유로), 중국은 174% 증가(4,355억 유로), EU는 62.2% 증가에 그침(영국 제외)
  - R&D 집약도는 2014년 2.09%에서 2020년 2.28%로 상승했다가, 2023년 2.26%, 2024년 2.24%로 하락(2023년 기준 주요국 R&D 집약도는 한국

4.96%, 미국 3.45%, 중국 2.58%, 일본 3.44%로 EU를 상회)

- EU는 오랫동안 R&D 집약도 향상을 정책 목표로 삼아왔으며, 2026년 제안 예정인 '유럽단일연구공간법(ERA Act)'은 R&D 투자를 GDP의 3%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할 계획

출처1	<a href="https://ec.europa.eu/eurostat/web/products-eurostat-news/w/ddn-20251204-2">https://ec.europa.eu/eurostat/web/products-eurostat-news/w/ddn-20251204-2</a>
출처2	<a href="https://sciencebusiness.net/news/r-d-funding/eu-budget/eu-rd-spending-increases-still-falls-short-3-target">https://sciencebusiness.net/news/r-d-funding/eu-budget/eu-rd-spending-increases-still-falls-short-3-target</a>

## 2 ERC, Consolidator Grant 수혜자 발표(12.9)

- 유럽연구위원회(ERC)는 2025년 Consolidator Grant 수혜자로 중견 연구자 349명을 선정, 총 7억 2,800만 유로 지원 예정
  - 이번 공모는 ERC 역사상 가장 경쟁이 치열한 지원 라운드 중 하나였으며, 지원자 수는 3,121명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
  - 수혜자들은 44개 국적을 대표하며, 독일(58건), 네덜란드(40건), 스페인(26건), 영국(65건) 등 총 25개 회원국 및 준회원국에서 연구를 수행할 계획
  - 선정된 연구자 중 국적 기준으로 독일(48명)이 가장 많고, 이탈리아(37명), 영국(33명) 순이며, 여성 연구자 비율은 38%로 최근 추세를 유지
  - 선정 연구자들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도전적 연구를 수행할 예정. 예를 들어, 슬로베니아 화학자는 단백질 모터 개발을, 네덜란드 생물화학 융합 연구자는 패혈증 조기 진단을 위한 양자 센싱 연구를 진행할 계획
- ※ 한국인 연구자도 포함되어 있으며, 전이인자 이동 조절을 위한 유전코드 해독 연구를 수행할 예정

출처	<a href="https://erc.europa.eu/news-events/news/erc-2025-consolidator-grants-results">https://erc.europa.eu/news-events/news/erc-2025-consolidator-grants-results</a>
----	-----------------------------------------------------------------------------------------------------------------------------------------------------------------------

### ③ MSCA Choose Europe 첫 시범공모 ... 2026년부터 본격 채용 시작(12.5)

- 2025년 MSCA 'Choose Europe for Science' 시범 공모가 12월 3일 마감되었으며, 총 18개국의 기관으로부터 58건의 제안서가 접수됨
  - 이 중 49건(85%)이 적격으로 판단되었으며, 스페인(9건), 프랑스(7건), 포르투갈(5건), 독일(4건) 등 기관에서 제안서 제출
  - 선정된 기관들은 박사후연구원을 고용할 EU 자금을 지원받으며,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연구자를 계속 고용하는 데 동의해야 함. 이를 통해 프로젝트 이후에도 안정적인 경력 경로를 제공하고, 양질의 채용·훈련·근무 조건에 대한 MSCA 모범 사례를 확산시키려는 목적
  - 2025년 12월~2026년 4월 동안 평가 진행, 2026년 5월 초 결과 통보 예정
  - 보조금 계약은 2026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체결될 예정이며, 프로젝트는 9월 1일부터 시작됨
  - 동 공모를 통해 지원되는 첫 번째 채용 공고는 2026년 9월부터 2027년 초까지 EURAXESS를 통해 게시될 예정, 연구자들은 참여 기관에 직접 지원 가능

출처

<https://marie-sklodowska-curie-actions.ec.europa.eu/news/msca-choose-europe-for-science-pilot-receives-58-proposals>

## 3. EU 연구성과

### ① [성공사례] MEDIATIZED EU 프로젝트, 미디어가 EU 시민 인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

- MEDIATIZED EU는 오늘날 미디어가 EU를 다루는 방식이 시민 인식과 정치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분석
  - 현대 뉴스 미디어는 오랫동안 정치 담론을 형성해왔으며, EU 통합·유럽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 반응은 미디어의 프레이밍 방식에 크게 좌우됨
  - 미디어 보도는 점점 더 정치화되고 냉소적 성향을 띠면서, 시민을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함
  - 일부 학자들은 ‘미디어 민주주의’ 확산을 언급하며, 정치적 과정보다 미디어 수행 능력이 더 중요해지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
- 프로젝트는 정치 엘리트·미디어 엘리트·대중 간의 상호작용이 EU 인식을 형성하는 핵심 메커니즘임을 확인
  - 연구팀은 7개 유럽 연구기관이 참여해 정치 엘리트(의원·정책결정자), 미디어 엘리트(편집자·특파원) 및 뉴스 미디어가 EU 담론을 어떻게 형성하고 전달하는지 조사
  - 정치 엘리트의 EU 평가(낙관·회의·비판)는 미디어에 의해 프레임화되어 대중에게 전달되고, 형성된 여론은 다시 정치 담론에 영향을 주는 순환 구조를 형성
  - 아일랜드 사례에서는 EU-아일랜드 관계를 ‘공유 가치에 기반한 상호 이익’으로 묘사하는 서사가 우세한 것으로 확인
  - 연구진은 이러한 접근이 유럽 프로젝트를 훼손하거나 인식을 왜곡하려는 행위자들이 허위정보나 조작된 메시지를 퍼뜨리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하다고 강조

- 연구는 다양한 국가 환경에서 EU 인식을 분석하고, 낮은 EU 이해도가 허위정보 확산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
  - 연구는 기존 문헌, 정책 문서, 설문 데이터, EU 보도 심층 분석, 수백 건의 엘리트 인터뷰를 활용해 다층적으로 수행
  - 분석 대상은 기존 회원국(벨기에·스페인·포르투갈·아일랜드), 신규 회원국(에스토니아·헝가리), 동방 파트너십 국가(조지아)까지 폭넓게 포함
  - 국가별 대표 표본 설문을 통해 시민이 EU를 어떻게 인식하고 무엇이 그 인식을 형성하는지 조사했으며, 결과는 공론 워크숍을 통해 각국 대상자에게 공유
  - 친EU 정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EU에 대한 대중적 이해도는 낮으며, 이는 친EU·반EU 양측의 허위정보에 모두 악용될 수 있는 요인
  - 연구진은 민주주의·기본권 보호를 위해 EU 리터러시(EU literacy) 강화, 즉 시민이 EU 작동 방식·가치·정책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
- 프로젝트는 유럽 프로젝트가 직면한 도전 속에서 EU 인식 형성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정책 대응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연구 결과를 제공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서구권의 민주주의 후퇴 등 복합 위기 속에서 EU 통합 프로젝트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
  - MEDIATIZED EU의 연구 결과는 유럽화(Europeanisation) 과정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변화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유로회의주의·포퓰리즘·반EU 성향·언론 장악 등 위협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제공
  - 연구진은 핵심 권고를 담은 정책 브리프를 작성했으며, EU 및 회원국 정책결정자를 위한 확장본도 제공
  - Lokot 교수는 “이러한 문제는 복잡하지만, 정책·공론의 양 측면에서 대응하는 것이 유럽 확장, EU 제도 강화, 유럽 연대 강화의 핵심”임을 강조

MEDIATIZED EU 프로젝트

- 기간 : 2021.01 ~ 2024.12
- 예산 : 총 2 866 753 유로 (EU 약 100% 지원)
- 주관 : DUBLIN CITY UNIVERSITY (아일랜드)

출처

<https://project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en/projects/success-stories/all/how-do-es-media-shape-public-perceptions-eu>

## 2 [성공사례] REBOOT 프로젝트, 유럽 영화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REBOOT 프로젝트는 유럽 영화산업이 헐리우드와 달리 문화 다양성·협업·예술적 자유를 중심으로 정체성과 경쟁력을 형성하고 있음을 분석
  - 저예산·다국적 공동 제작 애니메이션 Flow가 오스카 수상하며 유럽 협업 제작 모델의 가치 입증
  - REBOOT는 EU 회원국 9개국과 튀르키예의 11개 대학이 참여해 유럽 영화산업의 강점·약점, 관객 선호, 산업 지원 필요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
  - 연구진은 헐리우드식 모델을 모방하면 유럽 영화의 문화·정치·사회 기반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
-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확산, 청년층 관람 변화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창작 생태계·데이터 접근성·정책 지원 강화 필요
  - Netflix·Disney+ 등 플랫폼은 이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 방향을 결정하지만 유럽 제작자는 해당 정보 접근이 어려워 협상력이 약화
  - 영화인들은 유럽 콘텐츠 쿼터, 데이터 투명성, 글로벌 플랫폼의 투자 의무 등을 요구
  - 전통적 국경 간 공동 제작은 재원 확보·창작 교류·유통 확대·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여전히 필수적

- 청년층(4,000명 설문)은 스트리밍 시대에도 극장 경험의 매력을 높게 평가하며, 더빙 개선·티켓 가격 인하·접근성 향상 필요성 제기
  - 청년 창작자들은 영상 제작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초기 진입 장벽과 지원제도 복잡성으로 전문 네트워크 진출이 어려워 산업의 신선한 아이디어 공급이 제한됨
  - REBOOT는 사회적 현실성을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이 청년층에게 가장 큰 공감을 얻는다고 분석
- 유럽 영화산업의 향후 경쟁력 기준은 시장성과 함께 문화·예술·사회적 영향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
- 유럽 영화는 소수자 공동체 조명, 국경 간 이해 증진, 가치·민주주의·연대 강화 등 문화·정치적 역할 수행
  - 연구팀은 신기술과 디지털 작업 방식, 청년·독립 제작의 확산이 영화 산업에 새로운 협업·혁신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고 분석
  - Flow는 저비용 제작과 강한 스토리텔링, 유럽식 공동 제작 방식이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유럽 영화는 문화다양성·창의성·협업을 기반으로 장기적 지속성을 가진 핵심 문화 자산이 될 잠재력 보유

REBOOT 프로젝트

- 기간 : 2023.02 ~ 2026.01
- 예산 : 총 3 881 691 유로 (EU 3 823 688 유로 지원)
- 주관 : UNIVERSITAT WIEN (오스트리아)

출처

<https://project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en/horizon-magazine/lights-camera-action-europes-film-industry-wins-audiences-storytelling-and-social-reality>

### ③ [성공사례] NOMAD 프로젝트, 유럽 도시의 빈 공간을 공동체 기반의 활력 공간으로 전환

- NOMAD 프로젝트는 유럽 전역의 방치된 건물·빈집을 단기·공동체 기반 거주로 활용해 도시 재생, 사회적 연대,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
  - 유럽에는 4,700만 채 이상의 주택과 수많은 상업용 건물이 비어 있는 반면, 주거난과 임대료 상승으로 불안정한 주거 상황이 증가
  - Mazzarella 박사는 '사회적 순환경제' 관점에서 빈 공간의 재사용을 강조하며, 로테르담·델프트·브뤼셀·파리 사례를 중심으로 공동체 주도의 임시 거주 프로젝트가 도시 품질과 사회적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
  - Vlaardingen Commons 사례는 철거 예정 건물을 주민에게 무상 또는 저렴하게 제공하고 유지·관리·재생을 주민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
  - 주민들은 정원 가꾸기, 워크숍 운영, 공동 취사, 공용 사우나 등 자율적 활동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적 삶을 형성
  - 빈 공간의 임시 사용은 폐기물 감소, 새로운 생활, 공동체적 삶의 재구성 등 환경·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도시 재생의 촉매 역할 수행
  - NOMAD는 관찰·인터뷰·문헌 분석을 기반으로 임시 사용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해 지방정부·개발사·공동체가 활용 가능하도록 제시
  - 초기에는 일부 주민들이 이들을 불법 점거자로 오해해 우려를 표했으나, 이러한 초기 불신이 해소된 뒤에는 지역 갈등이 줄고 이웃과의 관계가 오히려 강화되는 사례가 확인됨
  - Vlaardingen Commons는 철거 후에도 공동 정원 조성 방식이 성공적 사례로 인정돼 재개발 설계에 포함
  - Stad in de Maak의 이전 프로젝트인 Pension Almonde도 공공 공간 개방으로 난민·이주민·여성 등 다양한 그룹이 문화·교육·사회활동을 펼치는 공간으로 발전

- COVID-19 시기에는 공동체 기반의 상호 지원 모델이 빠르게 작동해 식사·장보기 등 지역사회 돌봄을 수행
- 이러한 모델은 현재 Zwijndrecht에서도 이어지고 있으며, 임시 거주가 건물보다 오래 지속되는 공동체적 변화를 이끌 수 있음을 보여줌
- NOMAD는 임시·공동체 기반 공간 활용이 도시의 포용성·지속가능성·순환성을 강화할 수 있음을 정책적 근거로 제시하며, ‘New European Bauhaus’의 포용적 녹색전환 목표와도 부합
- Mazzarella 박사는 임시 사용의 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혁신과 신뢰 구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
- “25년 전부터 상향식 임시 활용이 도시 재생의 잠재력을 보여 왔으며, NOMAD가 이러한 혜택을 부각하고 혁신적·공동체 기반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 NOMAD 프로젝트

- 기간 : 2023.09 ~ 2025.09
- 예산 : 총 예산 미공개 (EU 187 624 유로 지원)
- 주관 : TECHNISCHE UNIVERSITEIT DELFT (네덜란드)

출처

<https://project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en/horizon-magazine/rethinking-urban-communities-transforming-vacant-spaces-vibrant-places>

## 4 [성공사례] TWINGHY 프로젝트, 수소 기반 하이브리드 버너로 철강 산업 탈탄소화 가속

- TWINGHY 프로젝트는 철강 재가열 공정에서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소 기반 하이브리드 버너를 개발하여 철강 산업의 주요 탄소 배출원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스페인 철강기업 CELSA는 스크랩을 재활용하는 전기로(EAF) 기반 생산체계를 통해 높은 순환성을 확보했지만, 압연 전 재가열 공정의

천연가스 사용이 여전히 주요 배출원으로 남아 있음

- 프로젝트는 수소·가스를 혼합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연소 기술을 개발하며, 2026년 실증 시험을 위해 필요한 수소 공급도 확보한 상태
  - 수소는 연소 시 CO<sub>2</sub> 대신 수증기만 배출하지만, 그린수소 공급이 제한적이며 카탈루냐와 같은 지역은 인프라 미비로 공급이 특히 어려운 상황
- 수소 연소 특성을 반영한 버너 설계, 디지털 트윈 도입, 기존 설비에 대한 후속 적용 가능성이 산업 전환의 핵심 요소로 평가됨
- 철강 재가열로는 최대 1,250°C, 길이 7m의 천연가스 화염을 사용하지만, 수소는 연소 속도가 빨라 화염이 짧아지는 특성이 있어 균일 가열 유지가 어려움
  -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 엔지니어링 기업 FIVES는 화염 길이를 제어하고 수소 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버너를 설계
  - CELSA와 바르셀로나 슈퍼컴퓨팅센터(BSC)는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여 연소 시나리오·효율·배출량을 실시간 시뮬레이션하고 산업 규모에서의 수소 연소 거동을 예측
  - 디지털 트윈은 2026년 완전 운영 예정이며, CELSA 3 공장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공정 최적화를 지원
  - 새로운 버너는 기존 재가열로에 후속 장착이 가능해 설비 교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탄소 저감을 실현하는 실질적 경로를 제시
-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는 그린수소 공급 확충과 투자 결정의 속도에 달려 있으며, TWINGHY는 EU의 '청정철강' 목표 달성에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됨
- 철강은 전 세계 CO<sub>2</sub> 배출의 약 8%를 차지하는 고탄소 산업으로, 항공 분야 배출의 3배 이상 규모
  - EU 석탄철강연구기금(RFCS)은 유럽그린딜에 따라 2030년 '준무탄소 철강' 달성을 목표로 대규모 연구를 지원

- CELSA 공장은 2024년 여름 정기 유지보수 기간 중 하이브리드 버너를 설치했으며, 현재는 천연가스로 운영하면서 수소 실증을 기다리고 있음
- 기술은 이미 준비되었으나, 그린수소 공급량 확보 여부가 상용화와 투자 속도를 좌우
- 버너는 기존 제품보다 비용이 높아 수소 공급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철강사들이 구매 결정을 늦출 가능성도 존재
- 그럼에도 Martínez는 “지금 시작해야 한다. 한 걸음씩이더라도 철강 산업은 더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

**TWINGHY 프로젝트**

- 기간 : 2023.02 ~ 2027.07
- 예산 : 총 8 575 321 유로 (EU 4 287 660 유로 지원)
- 주관 : COMPANIA ESPANOLA DE LAMINACION (스페인)

출처

<https://project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en/horizon-magazine/turning-heat-steels-carbon-pollution-problem>